

- 질적(해석적)연구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가 처한 상황 맥락을 중시한다.
- 질적(해석적)연구 방법은 사회·문화 현상에 있어서 사실과 가치는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.
- 양적 연구는 보다 통제된 상황에서 양적 자료에 의존한 연구이고, 질적 연구는 자연적 상황에서 질적 자료에 의존한 연구를 말한다.
-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를 유도하고,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를 유도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.
- 사회·문화 현상을 포함한 모든 현상은 내재된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. 따라서 자연 과학이든 사회 과학이든 과학적 탐구의 목표는 그러한 법칙을 발견하는 일이며, 현상을 기술해 주는 것만으로는 과학이 될 수 없다.
- 질적 연구는 아무런 조작을 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.
↳ = (통제된 상황이 아니라 자연적 상황에서)
- 실증적 연구 과정 중 ‘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단계’에서는 가치 개입이 용인(허용)된다. ↳ 연구 설계 단계 (3단계)
- 실증적 연구 과정 중 ‘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잠정적 관계를 설정하는 단계’에서는 가치 개입이 용인된다. ↳ 가설 설정 단계 (2단계)
- 수집된 자료를 통해 가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는 가급적 가치중립을 지켜야 하는 단계이다. ↳ 가설 검증 단계 (6단계)
/ 인간은 불가치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100% 가치중립을 지키기 어렵다. 따라서 가설의 진위여부 확인 단계에서는 가급적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실증적 연구도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.
/ 실증적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묻지 말아야한다.(X)
- 참여관찰법 , 면접법 모두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사이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.
/ 참여 관찰법에서 정서적 교감이 중요한 이유 : 관찰자와 관찰 대상자 간의 정서적 교감이 없으면 관찰 대상자가 관찰자를 꺼려해 관찰자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.
- ‘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클수록 이성친구가 많을 것이다.’ 라는 가설은 검증이 가능하다.
/ ‘자신감’은 인간의 심리중 하나로서, 설문조사의 항목 등으로 수치화하여 조사할 수 있다.
- ‘사회·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~ 일 것이다.’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회·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·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 또한 조사하여야 한다.

- 가설 설정 단계에서 연구자의 경험이나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다.

-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된다.
/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는 연구단계= 1,2,3,8

- 양적 연구 방법은 사실과 가치가 분리될 수 있다고 본다.
↳ 객관적 태도

- 질적 연구 방법은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. 따라서 연역적 방법을 쓰지 않는다.

- 이원론자들은 일원론자들과 달리 비공식 자료만을 토대로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.(X)
/ 이원론자들 또한 양적 연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.

-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과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.

- 질적 연구는 일기나 비공식적 문서 등을 선호한다.
↳ 질적 자료 / 일기 < 비공식 자료

- 양적 연구는 인간의 내적 동기와 분리된 행위를 연구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.

- 질적 연구는 사례들을 근거로 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적 과정을 선호한다.

- 양적 연구 -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간의 분리 가능
질적 연구 -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간의 분리 불가능

- 질적 연구도 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할 수 있다.
/ex. 인터뷰 준비, 면접 준비